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141)(3/12/2022)

제 3 권 내적 위로

제 30 장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가 회복될 것임을 확신함, 1-2 절

욥 1:3-4 - 3.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4.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눅 21:34 -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덮고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1. <그리스도> 나는 환난 날에 너의 힘이 되어 줄 너의 주님이다(나 1:7). 네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게 오라(마 11:28). 네가 하늘의 위로를 받는 데 가장 크게 방해되는 것은, 기도하기를 지체하는 것이다. 즉, 네가 내게 나아와서 간절히 기도하기 전에, 먼저 외적인 것들에서 이런저런 위로와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것이, 하늘의 위로를 받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오직 나만이 나를 의뢰하는 자들을 구원하고, 나 외에는 강력하고 유효한 도움이나 영속적인 치유책이 없다는 것을 네가 깨달을 때까지는, 네게는 그 어떤 것도 거의 유익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이제는 폭풍이 지나갔으니, 숨을 고르고, 내 긍휼의 빛 가운데서 강건하게 되어라. 왜냐하면, 나는 네 가까이에서, 너의 모든 것을 원래대로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풍성하고 차고 넘치게 회복시켜 주겠다고 이미 말하였기 때문이다.

2. 너무 어려워서 네가 처리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 내가 말만하고 행하지 않는 그런 존재더냐? 네 믿음은 다 어디로 갔느냐? 견고하게 서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말라. 오래 참고, 담대한 자가 되라. 때가 되면, 위로가 네게 임할 것이다. 나를 바라고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네게로 가서, 너를 고쳐 주리라(마 8:7). 네가 괴로워한다면, 그것은 시험일 뿐이고, 네가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쓸데없는 두려움일 뿐이다. 네가 장래의 일들에 대하여 염려한다면, 그런 염려는 네게 슬픔과 괴로움만을 가져다주지 않느냐? 그 날의 괴로움은 그 날에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마 6:34). 결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장래의 일들을 가지고서 괴로워하거나 기뻐하는 것은 헛되고 무익한 일이다.

말씀과 해설:

우리는 어제 묵상에서 환난을 당한 성도들이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 57 편을 중심으로 묵상해 보았다. 시편 57 편에 나타난 환난 당한 다윗의 대표적인 모습 중의 하나는 하나님 한 분을 향한 믿음을 바탕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믿음의 길을 걷고 기도의 길을 가는 성도는 삶이 주는 거센 풍파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자신이 가야 할 소원의 항구를 향하여 인생의 배를 저어 갈 수 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내가 가진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믿음과 기도의 항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은혜의 길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고,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순전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할까?

(1)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만족하게 여기는 마음. 오바다는 에돔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선지자이다. 하나님은 당시 에돔의 교만을 꾸지람하셨다. 욥 1:3-4 - 3.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4.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당시 에돔은 바위가 많은 산악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 에돔의 수도는 히브리어로 ‘반석’을 의미하는 셀라였다. 에돔은 수도를 비롯해서 온 나라가 높은 산악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매우 가파른 경사로 인해 적군들이 침략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다. 따라서 에돔 백성들은 높은 곳에 사는 자신들을 아무도 끌어내릴 수 없다고 생각하며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죄악된 에돔 백성들이 회개하기는 커녕 자신들이 처한 환경을 믿고 교만하자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고 하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것, 그리고 우리가 순전한 기도와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것에서 만족과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한 마음을 품는 것이다. 마귀는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신 예수님께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그 모든 것을 주겠다고 했다. 이 유혹은 세상의 부귀 영화를 얻고 싶은 마음을 자극한 것임과 함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는 마음을 자극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마귀는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마 4:10)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 의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힘과 도움이 되심을 선언하셨다.

(2) **방탕함과 술취함과 염려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마지막 때를 의식하면서 영적으로 각성해 있어야 함을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주셨다. **눅 21:34 -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덮고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수님은 종말에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원하는 성도는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신다. “방탕함”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머리가 이리저리 뒤흔들리다’라는 말로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현기증과 두통이 일어나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이 구절에서 방탕함과 술취함은 같이 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방탕함과 술취함은 단순히 술의 문제 뿐만 아니라, 세상의 각종 쾌락에 탐닉하고 빠져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세상의 염려**”는 세상의 일로 인하여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해 있음을 뜻한다. 우리는 삶 속에서 술과 쾌락이 마음에 가득한 상태 그리고 염려가 가득한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 상태가 되면 “**마음이 둔하여**”진다.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세상 쾌락에 젖어있고, 세상의 일로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면 영적으로 둔해지고 무감각해지게 된다. 그래서 기도도 중단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며, 신앙생활 전반이 무너지게 된다. 아울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메시지가 주어져도 알아듣지 못한다. 예수님은 “생활의 염려”를 “방탕함”과 “술취함”과 같은 수준의 문제로 취급하셨다. 염려는 방탕 만큼이나 우리를 영적으로 해롭게 하는 위험한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위의 세 가지에 빠져있을 때 덮고 걸리는 듯한 환난과 심판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뜻밖에 그 날이 덮고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고 말씀한다. 주님은 환난과 심판은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그것을 피할 수 있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음을 말씀했다. 그래서 **눅 21:36**에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하셨다. 주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식하며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동시에 삶 속에서 미혹에 빠지고 타락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나의 잘못으로 인해, 혹은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갑자기 닥칠 수 있는 환난을 피하고 은혜 가운데 대처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특히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며 깨어 기도해야 한다. 주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실천하는 성도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주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우리의 영혼에 해악을 끼치는 것들로부터 온전히 벗어나 영적 승리를 얻게 하옵소서.
2. 억압과 핍박 속에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이 땅 곳곳의 주의 백성들을 강력한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잡으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3. 교회창립 50 주년을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모든 계획과 행사가 되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목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